

# aT, 美 수도 워싱턴서 'K-푸드' 매력 알렸다

미국 외식업계 3천명 대상  
한국산 식재료·전통주 홍보  
현지 외식메뉴 활용 큰 관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3회 라미 어워즈(RAMMY Awards)'에 참가해 현지 셰프, 외식업계 관계자,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국산 K-푸드 식재료를 홍보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K-푸드의 매력을 알리려 주목을 받고 있다.

aT는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3회 라미 어워즈(RAMMY Awards)'에 참가해 현지 셰프, 외식업계 관계자,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국산 K-푸드 식재료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1982년부터 개최된 라미 어워즈는 워싱턴DC 지역의 대표 외식 시상식으로 매년 3천여명의 외식업 종사자가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올해의 셰프', '올해의 레스토랑', '올해의 신인 셰프' 등 20여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며 지역 외식산업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조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식당 '안주(Anju)'가 '올

해의 셰프' 부문에 수상해 미국 내 한식의 위상을 입증했다.

aT는 K-푸드의 현지 외식 시장 내 대량 납품 판로를 개척하고자 시상식과 연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산 인기 식재료와 전통주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현장에서는 소스류, 김치, 라면, 만두 등 레스토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전시하고 관객이 직접 한국산 식재료 샘플을 골라 담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돼지갈비찜, 떡산적, 양념치킨, 참치야채김밥, 김치주먹밥 등 K-푸드 시연·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셰프와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K-푸드의 깊은 풍미와 다양성에 주목하며 외식 메뉴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aT는 이날 선보인 모든 K-푸드에 사용된 한국산 식재료와 조리법, 거래처 정보 등을 담은 팸플릿을 비치해 외식업체와 한국산 식재료 벤더간의 후속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는 미국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푸드를 홍보해 레스토랑 등에 대량 납품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미국 외식·급식시장(HoReCa)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K-푸드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로 선출한다

KBS·MBC 등 사장 추천위 도입  
편성권·보도책임자 인선도 달라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KBS 등 이사회가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3개월 내 새로 구성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

우선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가

변경된다.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방송위의 임명 제정 절차가 있지만, 법률상 KBS 이사 정원과 국회교섭단체 등 추천기관의 추천인 수가 15명으로 동일해 추천된 후보가 사실상 그대로 이사로 제정되고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은 부칙에서 각각의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한다. 또 각각의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등 이사회를 개정법 규정에 맞게 구성하게 돼 있어 연내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에 있어 추

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방송법은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화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업무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이용요금이나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26건, 2023년 35건, 지난해 71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들어선 1분기에만 1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 신입보다 부장이 더 많아...기업 '세대역전' 현실화

신입 채용 감소·퇴직 지연 영향

신규 채용이 줄고, 퇴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50대 이상보다 적어지는 '세대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2022년부터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감소한 1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한 20.1%였다.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30세 미만 인력 비중도 2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천923명(21.9%), 2023년 23만888명(21.0%), 2024년 22만1천369명(19.8%)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50세 이상은 2022년 20만6천40명(19.1%), 2023년 21만4천98명(19.5%), 2024년 22만4천438명(20.1%)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간 격차가 컸던 업종은 이차전지로 최근 3년간 30세 미만 비중이 9.7%포인트(7천789명) 줄었고 50세 이상은 1.2%포인트(496명) 늘

국내 기업 30세 미만·50세 이상 직원 비중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 분석 결과



연령별 인력 구성이 비교 가능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124개 기업) 분석 결과

어 격차가 10.9%포인트에 달했다.

정보기술(IT)·전기전자 업종도 30세 미만 비중이 5.4%포인트(1만5천300명) 감소하고, 50세 이상은 3.1%포인트(6천933명) 증가해 8.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경기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참 인력의 퇴직이 지연되며 기업 내 고령화가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A100 Nice	A5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가자 가격 ₩ 1,380,000	소비가자 가격 ₩ 1,380,000	소비가자 가격 ₩ 800,000
헤드: 단층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헤드: 단층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헤드: 단층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길이: 85cm / 83cm (여성)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